

I. 개요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유럽에 이렇게가 아니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독일이 나름 유럽의 중간이라 다른 곳 가기 편할 것 같았고 또한 뮌헨 공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뽑아서 이곳으로 신청했습니다.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4. 파견 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Lucia Celinkovic, M.A. (Ms) Student Mobility Incoming Division. TUM Global & Alumni Office
celinkovic@zv.tum.de

II. 출국 전

1. 비자 신청 절차(현지 신청 기준)

(1)거주지 등록 Anmeldung

비자가 생각보다 발급이 오래걸려요! 우리나라는 생계조약의 영향과 상호주의에 의해 3개월 간은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독일에서 거주지가 정해지면 München Bürgerbüro에 거주지 등록 테어민(예약)을 잡고 Wohnungsgeberbestätigung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테어민은 온라인으로 잡으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널널합니다. 15분 정도면 끝나요. 등록이 끝나면 Anmeldebestätigung을 주는데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로 뭐가 날아온다는데 저는 못받아서 모르겠네요. 받은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2)비자 발급 Aufenthaltserlaubnis zum Studium

- 거주지 등록을 했다면 N26을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독일에 주소가 있다면 인터넷 은행인 N26에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856*(거주 예정 개월 수) 유료를 넣어두시고 비자 발급 테어민 잡힌 날 근처에 가서 계좌잔고를 보여주면 됩니다. 출력해서 가야겠죠? 비자 테어민은 구글에 Aufenthaltserlaubnis zum Studium München 검색하시면 muenchen.de 페이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굉장히 잡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특정 시간에 테어민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결국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침 일찍 가서(화, 목 시작 시간 1~2시간 전) 기다리면 순서대로 그 날 남는 자리를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은 AOK로 했는데 좀 비싸죠. 100유로 정도 하는데 좀 더 싼 게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TUM에서 온 안내 이메일로 여러가지 보내 보면 서류 어느정도 처리하고 비자 만들 때 필요한 보험 관련 서류를 AOK측에서 줄 거예요. 이것도 비자 만들 때 필요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눈 색깔 어머니 아버지 정보 등등 본인에 대한 모든 걸 적는 2장 양면짜리 서류가 있습니다. Ausländerbehörde 가면 비치되어 있고 뽑아서 쓰셔도 될 거예요. print할 수 있는 상점 가서 프린트해보세요! 아마 호스텔 같은 곳에서는 그곳에서 숙박한다는 전제로 어느 정도는 무료로 해줄 거예요.

- 여권은 당연히 들고 가시겠죠?

- 소중히 간직한 Anmeldebestätigung
-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뽑아가시면 되는데 입학허가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학기 시작하면 재학증명서 나오니까 본인의 모험심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재학증명서를 뽑아갑시다.

2. 교환 장학금 지원 시기 및 방법

공대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자동으로 공대측으로 정보가 가면 공대 담당자 분께서 이후 절차를 안내해 주십니다.

3. 숙소 지원 방법

TUM 측에서 신청할 사람 기한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배정이 됩니다. 9월까지로 되어도 한 달은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주면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 국외수학허가 신청 절차

마이스누에서 들을 과목 등의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각 과별로 절차가 있을 텐데 국외수학허가신청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서 찾아본 후에 없으면 담당자 분께 여쭙습니다.

III.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campus.tum.de에 모든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강의 정보가 올라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도 나옵니다. 과목마다 신청 시간이 다르고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에서 오는 개별 공지도 잘 확인하여야 하고 독일어 강좌의 경우 경쟁이 꽤나 있는 편이니 해당되는 레벨에 맞게 잘 신청을 합시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campus.tum.de에서 해당 과를 선택하시고 과목을 찾아보시면 과목별로 설명이 나옵니다.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과에 따라서 독일어 수업은 학점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독일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하나쯤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 많으니 잘 찾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에 관심이 있어서 Security Engineering을 수강하고 알고리즘 강좌도 수강했는데 진행 방식이나 내용이 서울대에서는 없었던 거라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3. 학습 방법

다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본인도 불확실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별로 메신저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메신저 안에서 이것저것 알아봐도 될 것 같군요.

4. 외국어 습득 요령

저는 초독1, 2를 하고 왔는데 뮌헨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수업도 많이 듣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서 귀가 조금은 트였는데 아직도 완전히 이해는 못합니다. 단어가 초독2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된 회화를 하려면 단어를 10배 정도는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사전만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독일어 수업은 B1.1을 들었는데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법 자체는 이미 한 거지만 수업 중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는 거나 독일어로 말해야된다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IV. 생활

1. 가져가야 할 물품

생활하려면 주방도구 등이 필요한데 Servicepaket이라고 해서 침구류는 침낭, 매트리스 커버, 베개, 텀블러를 제공합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비싸진 않은데 식당 물가는 간혹 팁까지 받아서 많이 비쌉니다. 한인마트 같은 곳 가면 한국 물건이 2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 독일에서는 Paypal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 Semesterticket 뮌헨 대학교 학생이라면 학생증에 평일 오후 6시~ 및 휴일에 쓸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낮에도 어딘가에 갈 일이 있겠죠? 약 200유로라 비싸서 많이 안 타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일일이 교통카드 발급해서 가기 생각보다 귀찮아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사는 잘 안 합니다. 학기 중에 두 번 꼴로 검사 받는다고 하네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undercover로 근무하기 때문에 절대 못 도망칩니다. 학기 시작일 돼서 표 발급할 수 있는 kiosk 가서 학번을 입력하면 종이카드가 발급됩니다. 학생증이랑 같이 들고 타시면 돼요. 뮌헨에 뭐가 많아서 한 달 내내 돌아다닐 수 있어요!

- Vodafone에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입력하고 근처 우체국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sim카드가 옵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괜찮은 거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다른 유럽에서도 보통 사용 가능합니다.

4. 안전 관련 유의사항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 한 것 같습니다.